



세종연구소

# 정세와 정책

## 1 제5차 한중일 3국정상 회담의 의미와 과제

이태환

## 5 한중 FTA의 정치경제

이호철

## 8 미·중 전략대화와 미중관계의 전개

한석희

## 11 푸틴3기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한러관계

정은숙

## 15 프랑스대선·그리스총선 이후 유로존 위기의 정치경제

정상화

## 제5차 한중일 3국정상 회담의 의미와 과제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thlee@sejong.org

지난 5월 1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5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지난해 9월 한국 서울에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3국 정상회담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속에 출범하여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협력의 틀을 만들어왔지만 앞으로 동북아 안보분야의 협력기제로도 확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회의이기도 하였다. 정상회의 결과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통상 협력 심화, 사회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에 합의를 이룬 것이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한다, 이제 그 주요 성과는 무엇이고 의미는 어떠한가 향후 어떠한 과제가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 3국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의미

3국은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통상 협력 심화, 사회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

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를 포함하여 50개 항목에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간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안보문제와 양국 간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했다. 경제협력의 플랫폼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의 기초를 비전통 안보문제에서 시작하는 좋은 시도를 보였다. 그 주요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국은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통상 협력 심화, 사회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를 포함하여 50개 항목에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간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안보문제와 양국 간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했다. 경제협력의 플랫폼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의 기초를 비전통 안보문제에서 시작하는 좋은 시도를 보였다.

첫째, 정치적으로 고위급의 교류증대를 통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은 또 재난구호, 원자력 안전, 지진 공동연구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특히 일본의 재난방지를 위한 고위급회의를 7월에 개최하는데 지지를 표명하였다. 동시에 해적, 에너지·사이버 안보, 전염병,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관한 3국간 협력 증진을 장려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한중일 3국이 북한 핵실험을 중요한 역내 안보문제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데 일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북한을 의식하여 비록 공동선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중일 3국 정상 이 북한핵실험에 반대한다는데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한중일 협력의 기틀 마련에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한중일 FTA 연내 협상개시와 투자 보장협정의 체결이다.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FTA 연내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한중일 경제협력의 플랫폼이 형성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6%,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3대 경제권이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FTA협상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적으로 한중일 FTA 연내 협상개시와 투자 보장협정의 체결이다.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FTA 연내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한중일 경제협력의 플랫폼이 형성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6%,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은 3대 경제권이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FTA협상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셋째,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에 따른 서명이다. 이 협정은 3국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의 법률적인 틀이다. 2007년 3월부터 교섭이 시작되어 지난 3월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서명에 서명하여 한중일 3국 간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대국 정부의 국유화 결정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받고 당사자 간 협의로 분쟁 해결이 안 될 때 중재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역내 투자자 유인 및 보호 장치가 한층 두터워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넷째, 문화적으로 3국간 문화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문화와 예술 페스티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교육 협력을 위

해 3국간 교육부 장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 외에 3국간 관광객 인적교류가 2015년까지 2,600만에 이를 것을 목표로 이에 대비하여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기로 한 것 등이다.

다섯째, 3국정상은 상호신뢰, 호혜 및 공동발전 등을 토대로 3국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 합의가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이다. 한중일 FTA 협상개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이 FTA를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핵실험과 추가도발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은 한중간 소통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양자 간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이 긴밀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탈북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키로 하였고 안보 국방 분야에서도 긴밀히 소통 협력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전략적인 고려

짚어봐야 할 대목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 합의가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이다. 한중일 FTA 협상개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이 FTA를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입장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중국의 입장

중국은 연내가 아니라 이번 5월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개시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일 FTA는 미국의 경제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중국 언론에서도 한중일 FTA 추진은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

고 있지만 이러한 협력이 중국에 반드시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sup> 그동안 중국은 양자간 FTA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중국은 40개가 넘는 국가나 지역과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sup>2)</sup> 그러나 이제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자간 FTA에 대해서도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때문에 한중일 FTA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자세로 바뀐 배경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참여할 의사를 밝히자 미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한 시점에 일본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때문에 한중 FTA건, 한중일 FTA건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 동북아시아 FTA로 경제협력체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일본의 입장

다음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일본의 입장이다. 일본은 미국 중심의 TPP, ASEAN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파트너십(RCEP)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과 FTA를 맺은 한국이 한중 FTA 협상 개시까지 공식 선언하자 이에 대응하여 한중일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일본은 2004년 한국과 FTA협상을 벌이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한국이 한중 FTA를 시작하면서 한일 FTA와 한중일 FTA를 서두르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이자 일본은 한중일 FTA 협상이 시

작되지 않으면 중일 FTA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 이는 한중일 FTA 추진이 경제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동북아 경제 협력메카니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일 FTA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자세로 바뀐 배경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참여할 의사를 밝히자 미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한 시점에 일본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때문에 한중 FTA건, 한중일 FTA건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 동북아시아 FTA로 경제협력체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의 입장

한국은 3국간 FTA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 한국은 이미 한미, 한-EU FTA를 발효시켰고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도 FTA 협상을 개시했다. 또한 한중 FTA와 한일 FTA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일 FTA를 올해 하반기에 재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한일 FTA가 재개되지 않으면 중일 FTA부터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음에 비추어 한중, 한중일 FTA에 중일 FTA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일 FTA 재개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인 실익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구도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데 목표를 두려는 것이다.<sup>3)</sup> 일본 정부가 중일 FTA의 속도를 높일 경우 가중되는 부담을 줄이고 한중 FTA와 한일 FTA 협상

- 1) 중국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이로써 얻는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한일은 중국의 자원, 인력, 부동산 그리고 정책적 혜택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對중국 투자에 있어 고수익을 창출하여 중국 내수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나, 중국 내 민영기업들은 투자 부족으로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2) ASEAN 및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등과는 이미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그리고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GCC(걸프협력회의),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등과는 협상중에 있다.
- 3) 한일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2004년 한국과 일본과 FTA 협상이 중단된 이유는 일본이 농업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철폐 등 주요 의제 협상에서 양보를 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없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데다 제조업 경쟁력은 한국보다 높은 일본과 선불리 FTA를 맺을 경우 대일(對日)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양쪽을 지렛대 삼아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3국이 지역 내 문제들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3국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3국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설치된 것을 계기로 한국이 3국 협력틀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공간과 입지를 확보하였고 한중일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재난방지를 위한 3국협력을 포함하여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계기로 역내 안보 협력의 기틀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갖게 하였다.

### 향후 과제

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3국이 지역 내 문제들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3국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3국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설치된 것을 계기로 한국이 3국 협력틀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공간과 입지를 확보하였고 한중일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재난방지를 위한 3국협력을 포함하여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계기로 역내 안보 협력의 기틀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갖게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도전과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첫째, 한중일 FTA의 연내 협상개시에 합의하였지만 한중일 3국의 리더십이 모두 교체되는 시기라서 아무래도 내년이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개시가 협상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협상체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3국 모두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있어 협상에 서 쉽사리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둘째, 3국간 신뢰 구축의 문제이다. 한중일 삼국 간에는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 이어도 문제, 독도 문제 같은 영토와 역사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점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드러났다. 3국 정상회담과 별도로 개최된 중일 양국 간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분리 독립운동이 계속되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문제와 센카쿠 열도의 문제를 거론하며 핵심적 이익과 중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존중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이어도 문제, 어업 분쟁, 서해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등이 있어 양국 간에도 협력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국간 신뢰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미국 요인이 한중일 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중일 FTA는 3국간 문제이지만 모두 미국과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이 한중일 FTA 구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가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3국은 각자 입장에서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TPP 가입이나 한미 FTA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과 더불어 상호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한국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요인이 한중일 협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중일 FTA는 3국간 문제이지만 모두 미국과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이 한중일 FTA 구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가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3국은 각자 입장에서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TPP 가입이나 한미 FTA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과 더불어 상호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한국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